

자기소개서

소 속	항등남초등학교	직 위	교감	성 명	한구석
-----	---------	-----	----	-----	-----

I

송학초등학교 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은 소중한 미래사회의 희망입니다. 학교 존재 이유가 아이들 교육에 있으며 아이 하나하나의 삶을 살리고 키우며 힘을 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고운 빛깔과 향기를 피울 수 있는 들꽃 같은 아이로 자라도록 나는 교사로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늘 반성하고 성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교사의 길은 고난하고 좁은 길이였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동고동락하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함께 걸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현장을 바꾸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혁신과 미래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가르치고 새롭게 배우는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994년 초임교사로 시작하여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다 이제 교장으로서는 엄중한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복식학급을 맡아 좌충우돌 해매던 초임 교사때부터 충남에서 제일 컸던 67학급에서 젊은 부장교사로 활동하던 때, 고향인 전북에 발령받고 기뻐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공부하였고 가르쳤으며 학교 일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교감이 되어 두 번의 혁신학교에 도전하였고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모두가 꿈꾸는 학교를 만들어보고자 역량있는 선생님들과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불씨가 원동력이 되어 혁신학교를 거쳐 전북미래(혁신더하기)학교까지 선정되어 미래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문을 두드리봅니다. 지난 30여년간 초등 교육에 헌신했던 열정으로 교장으로 다시 한 번 송학초등학교를 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고자 발을 디뎌봅니다.

II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사다 (교사 1994.4~2014.8.)

“너는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되거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제가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사범학교에 합격하시고도 어려운 가정형편에 교사의 꿈을 포기하셨던 그 꿈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 누나 셋과 저는 모두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첫발령을 시작으로 지금 이순간까지 아버지의 말씀은 제 교육철학이 되어 교육자로서의 숭고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 우리학교에 복덩이 선생님이 왔어요

1994년 천안의 작은 시골학교에서 제 교사의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작은 학교에 하늘이 복덩이를 보내주셨다고 좋아하시던 백발의 교장선생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교장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보시고선 ‘신규가 참 수업을 잘하네’ 라고 하시며 갑자기 다음날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업공개를 했던 기억과 ‘오늘 수업 정말 재밌다’ 라며 웃음 섞인 아이의 한마디에 교사로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여 년간 교사로서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교학상장 하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배움에 몰입하며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대외 공개수업 및 교내 수업나눔에 먼저 앞장서 참여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과정을 통해 도전과 열정을 잃지 않으며 교실수업개선 우수교사로 표창도 다수 받았습니다.

2. 에듀테크 맞춤형교육도 내가 먼저!

컴퓨터가 생소했던 초임때부터 ICT활용과 교육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미래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즐겁고 호기심 가득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기기를 활용한 에듀테크 활용 기반의 수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정보소양 인증제 1등급과 각종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단지원 교육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보화역량을 인정받아 정보화교육 선도교사와 컴퓨터연수 강사로 활동하며 많은 선생님들의 정보소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전북e스쿨 우수학급으로 2회 선정되었고 전북e스쿨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북영재교육발전연구회 초창기 회원을 활동하였고 영재교육 자료개발위원과 정읍과 익산교육청,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영재교육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 조지아대학 토랜스 영재교육센터에서 해외연수를 받았으며 영재판별검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영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

2006년 방과후학교 태동기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의 정책연구부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 국가시책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정책초기 단계여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었으나 믿고 따라주는 동료교사들의 도움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작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쇠퇴하는 농촌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이 더불어 배우는 경험을 주고자 어울림 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근 소규모 4개 농촌학교가 함께 공동교육과정과 공동수업, 행사 등을 공유하고 함께 교원 연수와 협의회도 운영하였습니다. 1급 정교사 강사로 활동하며 방과후학교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희망을 쏘아올렸습니다.

4. 꿈과 끼를 키우는 다재다능 교육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과 정보분야 경진대회를 지도하여 도대회 금상 등 다수 수상하였고 지도교사상도 받았습니다. 육상경기를 지도하여 다수 수상하였으며 2012년 전국소년체전 유도대회에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기초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고 책을 가까이하는 학급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학급 긍정 훈육에 바탕을 둔 비폭력 대화와 인성교육으로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섰으며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사로서 1~6학년부터 전담까지 고루 맡았으며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교무, 연구, 과학·정보, 체육, 생활 등을 비롯한 모든 업무 부장교사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경험은 교사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협력과 공감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III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함께 나아가기(교감 2014.9 ~)

1. 배움 가득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감으로서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선생님들과 의기투합하여 2번의 혁신학교를 시작하였고 현재 모두 미래학교(혁신+학

교)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온전하게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존엄한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사유하고 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교실의 문을 열고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성찰하는 따뜻한 수업나눔이 문화로서 정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온작품 읽기, 그림책, 수업나눔 등의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독서토론 형태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앞장서 각종 학교민원을 해결하였고 관리자이자 동료로서 동고동락하며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갔습니다. 유달리 사건 사고와 민원이 많았던 교감 첫 부임 학교, 배움과 성장의 날 고난했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쓴 편지글을 눈물로 읽어내려가는 선생님과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잘 놀아야 잘 배우기 마련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미로 공간혁신 사업을 주도하였고 교육공동체가 1년여간 공들여 멋진 실내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온책 읽기를 통한 독서문화와 맞춤형 학습지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향상으로 어떤 아이도 배움에 소외되지 않고 실력 있는 미래 인재로 자라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2. 민주적 협력적인 교육공동체 만들기

배움도 가르침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미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교육활동 주인으로서 교사의 성장을 중심에 놓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학교 자체가 민주주의의 터전이 되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학교의 주인이자 파트너로서 학교교육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예산도 확대지원하고 실내놀이터를 직접 설계하여 완성하며 불치병어린이집기 바자회, 간담회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아름다운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꾸려나갔습니다. 해마다 워크숍을 통해 비전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적이고 비교육적인 업무를 경감하고 민원과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선생님들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전념하는 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열린 교장으로서 학교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풍부하게 교감하겠습니다.

IV 가슴 한구석이 따뜻한 공모교장에 도전하며

송학초등학교는 ‘모두가 으뜸인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기초·기본·개성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힘써 키우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길러주는 교육, 마음껏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나만의 빛나는 색깔로 꽃피우는 교육, 다름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어울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자라는 어린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두 번의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고 관계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적극 지원하며 민원에 뒷집지지 않겠습니다. 교문앞에서 아이들 하나하나 손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임 교장으로서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모두가 행복한 송학초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